곡성몰, 누적 매출 15억 원 달성!

지역 경제를 이끄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우뚝

전남 곡성군(군수 조상래)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곡성몰이 지난 14일 누적 매출 15억 원을 돌파하며,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에 한층 더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억 원 매출 달성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온 결과로, 곡성몰의 성공적인 운영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다.

곡성몰은 곡성군 내 120여 농가와 업체가 참여해 쌀, 한우, 토란 가공식품 등 560여 종의 고품질 농축특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신선하고 품질이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며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매출 15억 원 달성에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과 이벤트가 큰 역할을 했다. 지난 1월 설연휴 기획전부터 정월대보름 맞이 이벤트, 삼겹살데이 기획전, 곡성몰 입점업체 자체할인 기획전 등 시기별 맞춤형 프로모션이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었다.

특히, 곡성 대표 농산물인 유기농 쌀 백세미와 한우, 흑돼지가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았으며, 이 외에도 김부각, 사과, 멜론, 민물장어 등이 인기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곡성몰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8품목씩 30%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수요특가'행사와'전 상품 무료배송'이벤트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오는 17일부터 나눔업체 응원 이벤트를 시작하고, 곡성장미축제 특별전, 곡성 멜론 기획전 등 시기에 따른 맞춤형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곡성몰 담당자는 "입점 업체와 곡성몰을 사랑해주시는 소비자들의 도움으로 짧은 기간 동안 매출 15억 원을 달성하게 되어 감사 인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품질 좋은 상품과 다채로운 이벤트를 통해 더욱 사랑받는 쇼핑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곡성/이정수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추가 선정으로 더 풍성하게!

보성군, 4개 분야 9개 업체 신규 참여… 총 96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

보성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추가로 선정하고, 총 96개 품목의 답례품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선정은 지난 3월 31일 개최된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뤄졌다. 선정위원회는 지역자원 활용도, 상품공급의 우수성, 사업목적 부합성, 가격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4개 분야, 9개 업체, 19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

신규 선정된 답례품은 △송화버섯, △새꼬막, △뻘낙지, △왕새우, △한우 선물세트, △한우 채끝등심, △한우 꽃등심, △보성녹차유, △꽃차, △꽃 코디얼 세트, △녹차 막걸리 키트, △전통 방식의 된장·고추장 등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포함하며, △보성시니어클럽 청춘 공방의 목공예품, △보성군장학재단을 통한 지역 학생 장학금 기부 등 공예품과 기부형 답례품도 포함됐다.

보성군은 이번 추가 선정으로 기존의 녹차, 키위, 꼬막 등 지역 대표 특산물뿐만 아니라, 관광·체험형 상품, 천연염색 제품, 반려 용품 등 이색 답례품까지 총 96개 품목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운영하게 됐다.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 보성군 답례품 몰에서 만나 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답례품 사후 관리를 통해 품질을 관리하고, 앞으로도 보성만의 특색 있는 답례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며 "더 많은 국민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전했다.

모금된 기부금은 보성군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등에 활용된다.

보성/김운기 기자

'연꽃축제'새 이름 찾아요… 전 국민대상 명칭 공모

무안군, 6월 개최 앞두고 축제 명칭 공모… 4월 25일까지 접수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6월 26~29일 4일간 일로읍 회산백련지 일원에서 열리는'제28회 무안연꽃축제'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축제 명칭을 공모한다.

그동안 연꽃축제는 백련 개화 시기인 7~8월 중 개최됐으나,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는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앞당긴 6월 말에 열린다.

이에 따라, 군은 연꽃 개화시기에 얽매이지 않고 축제의 다양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축제 명칭 공모에 나서게 됐다.

축제 명칭은 기존 연꽃축제의 상표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회산백련지의 자연과 야간 경관이 어우러지는 축제 콘셉트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공모는 오는 4월 25일까지이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는 무안군 홈페이지 고시공고(www.muan.go.kr)를 참고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전자우편(hjung1112@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작은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1명) 30만원, 우수상(1명) 20만원, 장려상(1명) 10만원의 시상금이 각각 지급되며, 선정작은 5월 중 개별로 통보할 예정이다.

박문재 무안군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연꽃이 피기 전 축제가 열리다 보니 관광객들의 기대와 현장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축제 명칭을 새롭게 만드려고 한다"며 "전국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을 통해 참신하고 매력적인 이름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군 제공

카메라 뉴스

영광군,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배수펌프장 등 현장점검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여름철 자연재난(태풍 · 호우)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4월 15일, 두우 배수펌프장과 인명피해우려지역 등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을 앞두고 시행된 사전 대비 조치로, 군은 기후위기 대응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배수펌프장 시설 관리 상태와 가동 준비 상황, 재난 대응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군 관계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펌프장을 비롯한 취약지역의 시설물 점검과 보완 조치를 철저히 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영광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광/이현식 기자

장흥군, 노인요양시설 감염병 예방 위해 '환기시설' 지원

장흥군은 올해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감염에 취약한 노인요양시설의 실내 공기질 개선과 호흡기 전염병의 집단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노인요양시설 1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노인요양시설은 어르신 29명이 입소하여 거주하는 시설로 공동 식사, 프로그램, 돌봄서비스 등이 수시로 진행되기에 환기시설이 꼭 필요한 곳이다.

환기시설은 1대당 최대 단가 179만 원(보조금 80%, 시설 자부담 20%)으로, 올해 5월 말까지 총 5대를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장흥군 제공

구례군, 농업기계 사고 예방과 응급대응 역량 강화 안전교육

구례군 농업기술센터와 구례 소방서는 지난 4월 14일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안전교육을 공동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번기를 앞두고 빈번히 발생하는 예초기 사고를 예방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기술센터는 예초기의 올바른 사용법, 사고 예방 수칙, 주요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이론 교육을 진행했으며, 실내 실습으로 보호안경과 무릎 보호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체험을 제공했다. 이어 구례 소방서는 심폐소생술(CPR)과 119 신고 요령에 대해 교육을 하고, 실습용 마네킹을 활용한 CPR 체험을 진행하여 농업인들에게 실제 응급상황 대응법을 안내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한국전력 KEPCO